

요한복음 3:13의 번역에 대한 재고

송승인*

1. 서론

요한복음 3:13의 해석은 오랫동안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진 난제는 이 구절에 포함된 완료 시제 ἀναβέβηκε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만약 이 구절을 예수의 발언으로 이해한다면 이 시점에서 예수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므로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다. 그런데도 예수는 ἀναβέβηκεν이라는 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이 시점에 이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로 묘사된 예수는 성육신을 통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적은 있지만(1:14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1:1부터 3:12까지에서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완료 시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이제까지 있었다. 이 유명한 난제 외에도 이 구절에는 본문 비평적 이슈와 이 구절의 εἰ μ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한 중요한 이슈이다. 이 세 가지 이슈

* Gateway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개신대학원대학교 초빙 교수.
sisong72@gmail.com.

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므로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해 이 이슈들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공헌하고자 한다.

2. 본문 비평

이 구절에 대한 본격적인 주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개역개정에도 각주 처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의 사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NTG²⁷이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ὁ ὦν ἐν τῷ οὐρανῷ(“하늘에 있는”)가 빠진 사본들로서 주요 사본은 P⁶⁶ P⁷⁵ ⋈ B L T W^S 083. 086. 33. 1241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ὁ ὦν ἐν τῷ οὐρανῷ를 포함한 사본들로서 대표적인 사본들로는 A(*) θ ψ 050 f^{1.13} latt sy^{c.p.h}가 있다.

P ⁶⁶ P ⁷⁵ ⋈ B L T W ^S 083. 086. 33. 1241	καὶ οὐδεὶς ἀναβέβηκε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εἰ μὴ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άς,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A(*) θ ψ 050 f ^{1.13} latt sy ^{c.p.h}	καὶ οὐδεὶς ἀναβέβηκε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εἰ μὴ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άς,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u>ὁ ὦν ἐν τῷ οὐρανῷ</u>

이 두 가지 독법 중 대부분의 학자들은 짧은 본문을 지지하고 소수의 학자들만 긴 본문을 지지한다.¹⁾ 그런데 최근에 블랙(A. Black)과 바르다(T. Baarda)가 다시 긴 본문을 지지하는 소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이 이슈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²⁾ 긴 본문을 한글로 옮긴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가 될 것이다. 영어 성경도 두 가지 독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번역한다. 예를 들어 ERV와 KJV는 긴 본문을 선택하고, ESV와 RSV는 짧은 본문

1) 긴 본문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바레트(C. K. Barrett)이다. C. K. 바레트, 『요한복음 (1)』,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336.

2) A. Black, “The Text of John 3:13”, *Grace Theological Journal* 6 (1985), 49–66; T. Baarda, “John 3:13: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 A Plea for the Longer Text”, J. Krans, L. J. Lietaert Peerbolte, P.-B. Smit, and A. W. Zwiep, eds., *Paul, John, and Apocalyptic Eschatology: Studies in Honour of Martinus C. de Boer*, NovTSup 149 (Leiden: Brill, 2013), 256–273.

을 선택하여 번역하였다.

이처럼 두 가지 독법이 존재하므로 둘 중 어느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까운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자는 본문 비평의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보고자 한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본문 비평의 외적 기준은 짧은 본문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짧은 본문을 포함하는 사본들이 훨씬 더 초기의 사본들이기 때문이다. 짧은 본문을 포함한 대표적인 사본들 중 P⁶⁶은 약 A.D. 200년으로 추정되고 P⁷⁵는 A.D. 175-225년 사이로 추정되는 사본들이들은 요한복음을 포함하는 사본들 중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다.³⁾ 그리고 4세기의 대문자 사본인 시나이 사본(Ⲁ)과 바티칸 사본(B)도 이 짧은 본문을 담고 있다. 이 사본들 모두는 일반적으로 초기의 훌륭한 사본들로 인정받는다. 거기에 비해 긴 본문을 포함하는 사본들 중 대표적인 사본인 A는 5세기, θ 는 9세기, ψ 는 9-10세기로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기록된 사본들이다.⁴⁾ 따라서 우리는 짧은 본문이 긴 본문보다 훨씬 더 초기의 사본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본문 비평의 외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본들의 지역적 분포이다. 본문 비평의 일반적인 원칙은 한 본문 형태만 지지하는 읽기보다는 둘 이상의 본문 형태가 지지하는 읽기가 더 원문에 가깝다고 판단한다.⁵⁾ 이 원칙에 따라 블랙은 긴 본문은 여러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데 비해 짧은 본문은 “알렉산드리아 본문” 형태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긴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긴 본문은 비잔틴 본문 형태, “서방 본문” 형태, “가이사라 본문” 형태에도 나타나고 있어 이 본문이 로마, 서방, 그리스,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까지 골고루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짧은 본문을 포함하는 사본들은 모두 “알렉산드리아 본문” 형태에만 제한되어 있어 이 짧은 본문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짧은 본문을 포함한 사본들 중 P⁶⁶과 W는 “알렉산드리아 본문” 형태와 “서방 본문” 형태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이 블랙의 주장도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즉 짧은 본문도 긴 본문보다는 다소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알렉산드리아와 서방에 퍼져 있었으므로 지역적으로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⁶⁾

3) B. M. Metzger and B. 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57-58.

4) Ibid., 67, 83, 84.

5) J. H. Greenlee,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Eerdmans, 1972), 119.

6) B. M. Metzger and B. D. Ehrman,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57, 80.

이제 본문 비평의 내적 기준을 적용해 보자. 본문 비평의 내적 기준에 대해 메츠거와 엘만(B. M. Metzger and B. D. Ehrman)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어려운 독법일수록 원문에 가깝다. 둘째, 필사가 속한 시대의 신학이나 습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읽기일수록 원문과는 멀다. 다시 말해 필사가 원문에 왜 그런 변경을 했는지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 변경을 제외한 독법일수록 원문에 가깝다는 기준이다. 셋째, 다른 곳에서의 저자의 글쓰기 방식과 용례와 잘 어울리는 독법일수록 원문에 가깝다.⁷⁾

이 세 가지 기준 중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해볼 때 긴 본문이 짧은 본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독법이다. 긴 본문을 채택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고 읽게 된다. 이는 인자인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지금 하늘에 있으면서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됨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즉 이 독법에 따르면 예수는 지금 하늘과 땅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를 때 우리는 긴 본문이 확실히 더 원문에 가깝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을 적용해 보면 ὁ ὢν ἐν τῷ οὐρανῷ라는 표현이 필사가 당시의 즉 훨씬 후대의 기독교론의 발전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가정해볼 수 있다.⁸⁾ 교회의 기독교론의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점차 예수의 신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아갔으므로 예수가 하늘에 있었다는 표현은 좀 더 후대의 기독교론을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표현이 후대에 추가된 것이 되므로 짧은 본문을 지지하게 된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필사가 이 표현이 중복이라고 느꼈거나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가능성이다.⁹⁾ 이 경우에는 긴 본문을 지지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가능해 보이므로 이 기준은 두 가지 본문 중 어느 본문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기준, 곧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저자의 글쓰기 방식과 상응하는지, 또한 요한복음의 전체 신학과는 잘 어울리는지의 여부를 이 본문에 적용해 보자. 블랙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ὁ ὢν + 전치사구의 형태가 등장하는 11번의 용례 중 6번이 요한복음에 등장함을 지적하며 3:13의 ὁ ὢν ἐν τῷ οὐρανῷ가 요한의 글쓰기 방식임을 주장한다.¹⁰⁾ 그러나 필자는 ὁ ὢν ἐν τῷ οὐρανῷ가 요한의 글쓰기 방식이라는 블랙의 주장에 다음 세 가지

7) Ibid., 313-315.

8)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71), 204.

9) A. Black, “The Text of John 3:13”, 57.

10) Ibid., 61-62.

이유로 인해 동의하지 않는다. 첫째, 요한복음 전체에서 ὁ ὢν ἐν τῷ οὐρανῷ라는 표현은 3:13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οὐρανός가 전치사 ἐν과 함께 사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οὐρανός는 대부분의 경우 전치사 ἐκ와 함께 사용된다(1:32; 3:13, 27, 31; 6:31, 32, 33, 41, 42, 50, 51, 58; 12:28). 간혹 ἀπό나(6:38) εἰς와 사용되기도 하지만(17:1), 전치사 ἐν과 함께 사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셋째, 요한복음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무려 15번이나 등장하지만 3:13의 긴 본문의 경우처럼 ὁ ὢν ἐν τῷ οὐρανῷ라는 표현이 인자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1:51; 3:13, 14; 5:27; 6:27(x2), 53(x2), 62; 8:28; 9:35; 12:23, 34; 13:31(x2)).¹¹⁾ 이 모든 15번의 용례에서 인자는 수식하는 표현 없이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요한복음 3:13의 긴 독법이 포함하고 있는 ὁ ὢν ἐν τῷ οὐρανῷ라는 표현은 요한의 글쓰기 방식과 배치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의 저자의 글쓰기 습관과 용례가 짧은 본문을 지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제 ὁ ὢν ἐν τῷ οὐρανῷ가 요한복음의 전체 신학과 잘 어울리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자. 비록 블랙은 이 표현이 요한복음의 신학과 잘 어울린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블랙은 요한복음 3:13의 긴 본문이 묘사하는 예수의 모습은 1:18과 1:51에 묘사된 예수의 모습과 잘 어울린다고 주장한다. 즉 블랙은 예수가 지금 니고데모에게 비록 자신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는 자로서 하늘의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블랙은 1:14에서 예수는 성육신한 로고스로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며 계시자요 구원자로서 묘사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1:51에서도 예수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지적한다.¹²⁾ 이런 그의 관찰은 옳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저자가 하늘에 있는 예수와 땅에 있는 예수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놓치고 있는 듯하다. 1:14에서도 예수가 성부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 시점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히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땅에 거한 상태에서 성부의 영광을 보여준다고 진술한다. 1:51에서도 예수는 분명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11) 요한복음의 인자에 대한 연구로는 W. Meeks, "The Man from Heaven in Johannine Sectarianism", *JBL* 91 (1972), 44-72; J. Ashton, "The Johannine Son of Man: A New Proposal", *NTS* 57 (2011), 508-529; 송승인, "복음서의 '인자(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에 대한 연구", 『신학연구』 77 (2020), 15-18; 김대웅, "예복1서 메시아 인자와 요한복음 로고스 인자- 관념적 유사성과 신학적 고유성", 『신약논단』 26:2 (2019), 373-411; 박영진, "요한복음 9:35-38에 나타난 인자", 『신학연구』 10:1 (2011), 55-87을 참고하라.

12) A. Black, "The Text of John 3:13", 58-61.

중보자로서 묘사되어 있지만 이 구절에서도 예수는 분명하게 땅에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즉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를 표현함에 있어 그가 하늘에 있는 상태(예를 들어 1:1-3)와 땅에 있는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필자는 본문 비평의 세 가지 내적 기준을 요한복음 3:13에 적용해 보았다. 세 가지 기준 중 첫 번째 기준은 긴 본문을 지지하고, 두 번째 기준은 두 본문 모두를 지지하고, 세 번째 기준은 짧은 본문을 지지한다. 따라서 내적 기준을 통해서는 두 본문 중 어느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까운지 판단하기 어렵다.

종합하여 보면 본문 비평의 내적 기준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외적 기준은 분명히 짧은 본문을 지지함을 알게 된다. 따라서 필자는 짧은 본문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3. εἰ μὴ와 ἀναβέβηκεν에 대한 해석

본문을 확정했으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대한 주해를 해보고자 한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다. 한 가지는 εἰ μ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이고 또 한 가지는 ἀναβέβηκεν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이다.

3.1. εἰ μὴ를 ‘외에는(except)’으로 해석

요한복음 3:13의 εἰ μ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외에는(except)’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¹³⁾ BAGD 사전에서는 이 표현에 대한 두 가지 의미

13) G. C. Nicholson, *Death as Departure: The Johannine Descent-Ascent Schema*, SBLDS 63 (Atlanta: Scholars Press, 1983), 91-98; P. Borgen, *Logos was the True Light and Other Essays on the Gospel of John* (Trondheim: Tapir Publishers, 1983), 133-148; P. Borgen, “Some Jewish Exegetical Traditions as Background for Son of Man Sayings in John’s Gospel (Jn 3, 13-14 and context)”, M. de Jonge, ed., *L’Évangile de Jean: sources, rédaction, théologie* (Gembloux, Belgium: Duculot, 1977), 243-258. C. K. 바레트, 『요한복음 (1)』, 336; D. Burkett, *The Son of the Man in the Gospel of John*, JSNTSup 5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1), 82; J. Ramsey Michaels,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0), 195; R. Schnackenburg,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Tunbridge Wells: Burns & Oates, 1967), 1.393; J. Frey, *Die johanneische Eschatologie I*, WUNT 96 (Tübingen: Mohr Siebeck, 1997), 133, 254; U. Schnelle, *Das Evangelium nach Johanne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8), 73.

를 소개하는데, “except”와 “but”이다.¹⁴⁾ 이 두 가지 의미 중 전자가 신약성경에 더 많이 등장한다(마 5:13; 11:27; 12:24; 16:4; 막 6:5; 행 12:25; 롬 7:7; 갈 1:19). 이 의미로 번역할 경우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수가 자신이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고 말하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요한복음 3:13의 이 시점에서 예수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전이므로 이 ‘하늘에 올라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취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의 경우 이 구절에서 말하는 화자가 실제로는 예수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해석한다. 즉 표면적으로는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가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신의 시점에서는 이미 과거의 사건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인자 즉 예수만 하늘에 올라간 유일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본문의 $\epsilon\iota\ \mu\eta\acute{\iota}$ 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시대착오적인 진술이 되는 단점을 가진다.¹⁵⁾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의 지상 사역의 시점과 그의 부활 이후의 시점을 매우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2:22; 12:16) 이 구절에서만 유독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진술을 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¹⁶⁾ 그리고 이 해석은 이어지는 3:14와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도 있다. 왜냐하면 3:14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표현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¹⁷⁾

3.2. $\epsilon\iota\ \mu\eta\acute{\iota}$ 를 ‘그러나(but)’로 해석

두 번째 해석은 $\epsilon\iota\ \mu\eta\acute{\iota}$ 를 ‘외에는’이 아니라 ‘그러나(but)’로 해석하는 방법이다.¹⁸⁾ 이러한 해석은 앞의 경우보다는 그 용례가 적지만 그렇다고 해

14) BAGD, 220.

15) 박정식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진술을 피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로 해석한다. 박정식, 『요한복음 주석I』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317.

16) D. A. 카슨, 『요한복음』, 박문재 역 (서울: 솔로몬, 2017), 357.

17) F. J. Moloney, *The Johannine Son of Man* (Rome: LAS, 1978), 54.

18) F. J. Moloney, *The Johannine Son of Man*, 53-59; D. A. 카슨, 『요한복음』, 357-358; J. H. Bernar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of St. John* (Edinburgh: T&T Clark, 1929), 111; B. F. Westcott,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London: John Murray, 1908), 53.

서 아주 드문 용례도 아니다. 신약 전체에서 마태복음 12:4; 누가복음 4:27; 갈라디아서 1:7; 요한계시록 21:27에서 이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RSV는 요한계시록 21:27의 ἐἰ μὴ를 “but”으로 번역한다.

But nothing unclean shall enter it, nor any one who practices abomination or falsehood, but (ἐἰ μὴ) only those who are written in the Lamb's book of life.

요한복음 3:13의 ἐἰ μὴ를 이 의미로 번역하면 본문은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3:13에서 예수는 자신이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3:12와 연결하여 해석하면 인자가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 즉 성육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즉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된다.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다.’

이 해석의 장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이 해석은 바로 다음 절인 3:14와 잘 어울린다. 3:13에서 완료 시제로 표현된 ἀναβέβηκεν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아무도 이제까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진술이기 때문에 3:14에서 예수가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미래로 표현하는 것과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다(“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일관되게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이 해석의 또 다른 장점이다(20:17; 14:2; 12:8, 28; 16:28; 17:5).¹⁹⁾

둘째,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또 한 가지 근거는 3:13이 분명히 예수의 발언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3:10-21의 발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학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표면적으로는 3장 전체에서 발언자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3:1-2에는 니고데모, 3:3에는 예수, 3:4에는 니고데모, 3:5에는 예수, 3:9에는 니고데모, 3:10에는 예수, 3:26에는 유대인들, 3:27에는 세례 요한이 발언자임이 표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러한 분명한 발언자의 표시 이외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발언자의 변화를 제안한다. 3:10-21의 경우에는 이제까지 다음의 세 가지 제안들이 있었다. 첫째, 비

19) F. J. Moloney, *The Johannine Son of Man*, 53-59.

슬리-머레이(G. R. Beasley-Murray)의 경우에는 3:10-12와 3:13-21을 나누고 전자에서는 예수가 발원자이며 후자에서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발원자라고 주장한다.²⁰⁾ 둘째, 카슨(D. A. Carson)은 3:10-15와 3:16-21을 나누고 각각 예수와 요한복음의 저자가 발원자라고 주장한다.²¹⁾ 셋째, 브라운(R. E. Brown)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3:10-21 전체에서 예수가 발원자라고 주장한다.²²⁾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 모두 3:13을 예수의 발원으로 본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3:13을 예수의 발원으로 보지 않는 비슬리-머레이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비슬리-머레이의 경우 이러한 구분의 근거는 2:23-3:36의 전체적인 구조에 따른 것이다. 비슬리-머레이는 이 부분을 크게 2:23-3:21과 3:22-36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이 둘이 다음과 같이 병행을 이룬다고 제안한다.

2:23-25 뒤따르는 대화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보고	3:22-24 보고
3:1-12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	3:25-30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
3:13-21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독백	3:31-36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독백

비슬리-머레이가 3:12에서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가 끝난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예수가 2인칭을 사용하는 부분이 이 절에서 끝나기 때문이다.²³⁾ 하지만 이 구분은 다음 두 가지 이유로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첫째, 3:13-14에 사용된 “인자”라는 호칭이 예수가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요한복음에 계속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제외하고 요한복음 전체에서 인자라는 호칭은 전체 15번 등장하는데 예외 없이 예수가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된다(1:51; 3:14; 5:27; 6:27(2번), 53(2번), 62; 8:28; 9:35; 12:23,

20) G. R. Beasley-Murray, *John* (Waco: Word Books, 1987), 46.

21) D. A. 카슨, 『요한복음』, 363-364.

22) R. E. Brow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149; F. J. Moloney, *Son of Man*, 48; 조석민, 『요한복음의 새관점』 (서울: 솔로몬, 2009), 154-157.

23) G. R. Beasley-Murray, *John*, 46. 이 부분의 인칭 변화를 살펴보면 예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를 향해 10절에서는 2인칭 단수인 $\sigma\upsilon$ $\epsilon\acute{\iota}$ 와 $\gamma\iota\nu\omega\sigma\kappa\epsilon\iota\varsigma$ 를 사용하고, 11상반절에서는 2인칭 단수인 $\sigma\upsilon$ 를 사용하다가, 11하반절에서는 2인칭 복수인 $\lambda\alpha\mu\beta\acute{\alpha}\nu\epsilon\tau\epsilon$ 로 바꾸고 12절에서는 계속해서 2인칭 복수인 $\acute{\upsilon}\mu\acute{\iota}\nu$, $\pi\iota\sigma\tau\epsilon\acute{\upsilon}\epsilon\tau\epsilon$, $\pi\iota\sigma\tau\epsilon\acute{\upsilon}\sigma\epsilon\tau\epsilon$ 를 사용한다.

34(2번); 13:31(2번)). 따라서 3:13도 예수의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를 가리키는 호칭은 다양한데, “예수”라는 호칭을 가장 자주 사용하며(1:29, 36, 37 등), 이외에도 “아버지의 독생자”(1:14), “예수 그리스도”(1:17), “독생하신 하나님”(1:18),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20:31)라는 호칭들을 사용한다. 3:13에서 “인자”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예수’ 혹은 ‘아버지의 독생자’와 같은 호칭이 사용되지 않음은 이 구절의 발언자가 예수임을 강하게 지지한다. 둘째, 13절은 접속사 *καί*로 시작함으로 앞 구절인 12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²⁴⁾ 원문으로 보면 3:10-21은 전체 10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 사이를 연결할 때 사용된 경우는 13절과 14절의 첫 단어로 사용된 단 2번밖에 없다(20%). 따라서 13절이 *καί*로 시작됨은 3:10-21의 전체 단락 가운데서 비교적 드문 현상이며 따라서 12절과 13절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 해석에 따라 3:13이 속한 3:10-15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10절에서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자신이 설명하는 것들(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한다. 그리고 12절에서 자신이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13절에서 아무도 이제까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으므로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는 이제까지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지만 자신이 곧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한다.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장차 십자가를 통해 들려야 할 것을 말하며 이러한 들림의 이유는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3.3. 동사의 상 이론(verbal aspect theory)에 따른 ἀναβέβηκεν 분석

앞의 두 경우 모두는 완료 시제인 ἀναβέβηκεν을 전통적인 동사 이론으로 해석했다. 즉 이 완료 시제를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그 결과가 미치는 동작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최근에 피어스(M. N. Pierce)와 레이놀즈

24) 요한복음 내 접속사 사용에 대해서는 V. S. Poythress, “The Use of the Intersentence Conjunctions De, Oun, Kai, and Asyndeton in the Gospel of John”, *NovT* 26 (1984), 312-340을 참고하라.

(B. E. Reynolds)는 이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동사의 상 이론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우선 피어스와 레이놀즈는 εἰ μὴ를 ‘외에는(except)’으로 번역하는 입장을 택한다. 동사의 상 이론은 동사의 형태가 우선적으로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의 개념을 나타낸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세부적인 점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동사의 형태의 우선적인 특징이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하에 피어스와 레이놀즈는 동사의 상 이론에 따르면 요한복음 3:13의 ἀναβέβηκεν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시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그들은 두 명의 동사의 상 이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포터(S. E. Porter)인데 그는 완료 시제 형태가 과거, 현재, 미래적 행동 모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캠벨(C. Campbell)인데 캠벨은 완료 시제 형태가 현재로 번역되어야 할 경우들을 제시했다(예를 들어, 마 27:43; 요 11:11; 딤후 4:6-7). 이처럼 동사의 상 이론에 따르면 완료 시제 형태는 반드시 과거 시제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제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료 시제 형태를 어떤 시제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그 구절이 속한 문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어스와 레이놀즈는 요한복음 3:13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문맥에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제안에 따라 본문을 해석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는 자가 없느니라’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예수의 하늘에서 내려옴(성육신)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하늘로 올라감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 즉 십자가 사건을 가리킴으로 요한복음 3:13이 시대착오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피어스와 레이놀즈는 이 구절의 부정과거 분사 καταβάς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분사의 경우 그 분사가 속한 문장의 주동사와 관련하여 분사의 시간을 표현한다. 이에 관련하여 포터는 문장에서 단어가 배치된 순서가 분사의 동작의 시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요한복음 3:13의 경우 문장의 주동사인 ἀναβέβηκεν이 먼저 나오고 이후에 분사 καταβάς가 기록되어 있다(καὶ οὐδεὶς ἀναβέβηκεν εἰς τὸν οὐρανὸν εἰ μὴ ὁ ἐκ τοῦ οὐρανοῦ καταβάς, 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 포터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분사 καταβάς를 주동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동작으로 이해해야 한다. 반대로 만약 문장에서 분사가 주동사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다면, 이때는 주동사의 동작이 분사의 동작보다 시간적으로 먼

저 일어난 동작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포터는 주장한다. 따라서 요한복음 3:13의 주동사(ἀναβέβηκεν)와 분사(καταβάς)의 기록 순서도 인자가 먼저 내려 온 후 올라가는 순서를 지지한다고 피어슨과 레이놀즈는 주장한다.²⁵⁾

그러나 이 동사의 상 이론을 적용한 해석은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서의 용례를 통해 볼 때 그리 설득력이 없다. ἀναβαίνω라는 동사가 요한복음에 전체 16번 사용되었는데(1:51; 2:13; 3:13; 5:1; 6:62; 7:8(2번), 7:10(2번), 7:14; 10:1; 11:55; 12:20; 20:17(2번); 21:11), 이중 3:13과 같이 이 단어가 완료 시제로 사용된 경우는 20:17상반 한 곳밖에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ἀναβέβηκα) 아니하였노라

이 구절은 예수의 부활 후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완료 시제 ἀναβέβηκα가 동사의 상 이론에 따라 현재 시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동사 이론에 따라 사용된다. 개역개정에는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I have ... ascended”로 번역함으로 이러한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했다(ESV, NAS, RSV). 즉 완료 시제를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 결과가 미치는 동작의 의미로 번역했다. 이러한 용례는 3:13에서만 동사의 상 이론을 적용해 현재 동작으로 해석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만든다.

4. 결론

이제까지 필자는 요한복음 3:13에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이슈는 본문 비평에 관한 이슈였다. 이 이슈에 대해 필자는 본문 비평의 외적 기준과 내적 기준을 차례대로 적용하여 이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짧은 독본이 더 원문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는 짧은 본문을 포함하는 사본들(P⁶⁶ P⁷⁵ & B)이 훨씬 더 초기의 사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본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도 짧은 본문을 포함

25) M. N. Pierce and B. E. Reynolds, “The Perfect Tense-Form and the Son of Man in John 3.13: Developments in Greek Grammar as a Viable Solution to the Timing of the Ascent and Descent”, *NTS* 60 (2014), 149-155; S. E. Porter, J. T. Reed and M. B. O’Donnell, *Fundamentals of New Testament Greek*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0), 110.

한 사본들 중 P⁶⁶과 W는 “알렉산드리아 본문” 형태와 “서방 본문” 형태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도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슈는 εἰ μὴ에 대한 해석이다. 이제까지의 관찰에 근거하여 필자는 이 표현의 두 가지 의미(‘외에는’과 ‘그러나’) 중 후자의 의미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의 근거로 필자는 3:10-13의 화자를 분석함으로써 이 이슈에 새롭게 접근했다. 비슬리-머레이의 주장에 반대하여 필자는 3:13-14에 등장하는 “인자”라는 호칭의 사용과 13절이 접속사 καὶ로 시작함을 통해 12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근거로 3:13에서 예수가 화자임을 주장했다. 세 번째 이슈는 완료 시제인 ἀναβέβηκεν에 대한 해석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이 단어에 동사의 상 이론을 적용한 피어스와 레이놀즈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해석에 대해 필자는 요한복음 20:17상반에 사용된 또 다른 완료 시제 용례인 ἀναβέβηκα가 전통적인 동사 이론에 따라 해석된 것이 이 해석에 대한 반대 근거로 작용함을 지적했다.

<주제어>(Keywords)

요한복음 3:13, 본문 비평, εἰ μὴ, ἀναβέβηκεν, 화자 분석.

John 3:13, textual criticism, εἰ μὴ, ἀναβέβηκεν, speaker analysis.

(투고 일자: 2021년 10월 15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15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대웅, “에녹1서 메시아 인자와 요한복음 로고스 인자—관념적 유사성과 신학적 고유성”, 『신약논단』 26:2 (2019), 373-411.
- 바레트, C. K., 『요한복음 (1)』,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박영진, “요한복음 9:35-38에 나타난 인자”, 『신약연구』 10:1 (2011), 55-87.
- 박정식, 『요한복음 주석I』,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송승인, “복음서의 ‘인자(ὁ υἱὸς τοῦ ἀνθρώπου)’에 대한 연구”, 『신학연구』 77 (2020), 7-29.
- 조석민, 『요한복음의 새관점』, 서울: 솔로몬, 2009.
- 카슨, D. A., 『요한복음』, 박문재 역, 서울: 솔로몬, 2017.
- Ashton, J., “The Johannine Son of Man: A New Proposal”, *NTS* 57 (2011), 508-529.
- Baarda, T., “John 3:13: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 A Plea for the Longer Text”, J. Krans, L. J. Lietaert Peerbolte, P.-B. Smit, and A. W. Zwiep, eds., *Paul, John, and Apocalyptic Eschatology: Studies in Honour of Martinus C. de Boer*, NovTSup 149, Leiden: Brill, 2013, 256-273.
- Beasley-Murray, G. R., *John*, Waco: Word Books, 1987.
- Bernard, J. 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Gospel of St. John*, Edinburgh: T&T Clark, 1929.
- Black, A., “The Text of John 3:13”, *Grace Theological Journal* 6 (1985), 49-66.
- Borgen, P., *Logos was the True Light and Other Essays on the Gospel of John*, Trondheim: Tapir Publishers, 1983.
- Borgen, P., “Some Jewish Exegetical Traditions as Background for Son of Man Sayings in John’s Gospel (Jn 3,13-14 and context)”, M. de Jonge, ed., *L’Évangile de Jean: sources, rédaction, théologie*, Gembloux, Belgium: Duculot, 1977, 243-258.
- Brown, R.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I-XII*,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Burkett, D., *The Son of the Man in the Gospel of John*, JSNTSup 5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1991.
- Frey, J., *Die johanneische Eschatologie I*, WUNT 96, Tübingen: Mohr Siebeck, 1997.
- Greenlee, J. H.,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Grand Rapids: Eerdmans, 1972.
- Meeks, W., “The Man from Heaven in Johannine Sectarianism”, *JBL* 91 (1972), 44-72.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71.
- Metzger, B. M. and Ehrman, B. D.,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Its Transmission, Corruption, and Restor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Michaels, J. R., *The Gospel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2010.
- Moloney, F. J., *The Johannine Son of Man*, Rome: LAS, 1978.
- Nicholson, G. C., *Death as Departure: The Johannine Descent-Ascent Schema*, SBLDS 63, Atlanta: Scholars Press, 1983.
- Pierce, M. N. and Reynolds, B. E., “The Perfect Tense-Form and the Son of Man in John 3.13: Developments in Greek Grammar as a Viable Solution to the Timing of the Ascent and Descent”, *NTS* 60 (2014), 149-155.
- Porter, S. E., Reed, J. T. and O'Donnell, M. B., *Fundamentals of New Testament Greek*, Grand Rapids: Eerdmans, 2010.
- Poythress, V. S., “The Use of the Intersentence Conjunctions De, Oun, Kai, and Asyndeton in the Gospel of John”, *NovT* 26 (1984), 312-340.
- Schnackenburg, R.,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3 vols., Tunbridge Wells: Burns & Oates, 1967.
- Schnelle, U., *Das Evangelium nach Johanne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8.
- Westcott, B. F.,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London: John Murray, 1908.

<Abstract>

Reconsideration of the Translation of John 3:13

Seung-In Song
(Reformed Graduate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ree main issues of John 3:13. The first is the issue of textual criticism. There are two major readings of this text: reading with the expression ὁ ὢν ἐν τῷ οὐρανῷ (in heaven) and reading without it. Regarding this issue, I judge that the short reading without this expression is closer to the original text, after applying the external and internal criteria of textual criticism. The conclusive ground for this judgment is that manuscripts containing the short reading (P⁶⁶ P⁷⁵ ⌘ B) are dated much earlier than manuscripts containing the longer reading. In terms of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manuscripts, P⁶⁶ and W among manuscripts including the short reading can be judged to have relatively wider geographical distribution as they are a mixture of Alexandrian and Western text-types.

The second issue is the interpretation of ἐἰ μή. Of the two meanings of this expression (except and but), I find the latter to be more convincing. As a ground for this judgment, I take a fresh approach to this issue by analyzing the speaker of 3:10-13. Beasley-Murray argues that Jesus is the speaker in 3:10-12 and the author of John's Gospel is the speaker in 3:13-21. Contrary to this argument, I argue that the speaker in 3:13 is Jesus. There are two grounds for this argument. First is that the expression the Son of Man applied to Jesus is used in 3:13-14. Second, verse 3:12 and 3:13 are closely connected by the conjunction καί.

The third issue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perfect tense ἀναβέβηκεν. Recently, Pierce and Reynolds interpreted this word by applying verbal aspect theory. To this interpretation of Pierce and Reynolds, I raise doubt based on the usage of ἀναβέβηκα in 20:17a where another verb in perfect tense form is used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erb theory. Through this study, I finally propose to translate this verse as follows: *And no one has ascended into heaven, but he who descended from heaven, the Son of Man.*